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교육사업

제3기 국제연수 참가안내

연수프로그램개요

유 형	방문국가	연수일정
클러스터	이탈리아-스위스-독일	05. 10. 12. ~ 10. 21
지역혁신	일본	05. 9. 22. ~ 9. 30.
산업개발	아일랜드-영국-프랑스	05. 10. 12. ~ 10. 22
문화관광	스위스-독일-덴마크	05. 10. 12. ~ 10. 21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kotef.or.kr

우리 재단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연수사업은 지역혁신주체의 실무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단기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지역혁신,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기술혁신, 소도시 육성전략, 문화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주제의 해외 혁신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연수목적

- 혁신 클러스터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대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함께 국제연수에 참여시켜 공동학습과 네트워킹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혁신 역량 강화.
- 혁신주체인 산·학·연·관이 다양한 해외 혁신 자원들과 접촉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대.
-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역혁신을 선도할 혁신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 마련.

2. 연수 추진방향

(1) 국제연수프로그램의 혁신모델 창출

- 사전 조사와 구체적 목표설정 없이 성공사례에 대한 결과만 보고 오는 연수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난관 해결 방안, 그리고,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수 추진.
- 지역의 수준과 현재 추진 중인 핵심시책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거쳐 실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일정을 기획하고, 전문가나 혁신리더가 함께 연수를 추진함으로써 연수 이후의 컨설팅으로 연결.

(2) 지자체·혁신기관의 실무역량강화 중심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단체장 또는 공무원, 클러스터 추진단 및 지역혁신거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기초광역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 혁신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모두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 혁신클러스터 육성 전략, 지역문화역사자원 활용 지역혁신 방법론, 문화관광 정주여건 기획, 신활력사업 기획역량 강화, 전통산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클러스터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소도읍 활성화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연수.

(3) 혁신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 사전에 연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비 일부를 부담할 자발적 참가자를 모집하고, 단일한 조직에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끌고루 참여시켜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입체형** 교육연수시스템으로 국제연수를 **혁신**합니다.
자료수집에서 성과확산과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연수 참가자분들과 **함께**합니다.

♣ 국제연수 운영계획

1단계	연수주제와 목표 결정 및 참가자 모집 시기별로 현안사항에 맞게 연수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60%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소수정예 연수팀 구성
2단계	사전 자료수집과 메일을 통한 학습 연수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학습과 함께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연수일정과 현지 인터뷰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체적인 연수일정을 공유
3단계	현지 연수와 워크샵 연수주제에 정통한 전문가 겸 혁신리더가 동행하고, 현지에서 참가자들간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워크샵을 최소 1회 이상 진행하여 연수내용을 심화학습
4단계	성과평가와 보고서 작성 귀국 전날 워크샵 겸 성과평가회의를 열어 국제연수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연수 사업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
5단계	연수성과의 확산과 컨설팅 연계 연수보고서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확산하여 지역의 기획력 향상과 지역혁신 실무자간 네트워크 구축 기여
6단계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연수과정에서 알게 된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혁신역량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적 차원의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교류를 지속

3. 프로그램 개요

팀명	클러스터	지역혁신	산업개발	문화도시
주제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	자치단체 도시마케팅 역량 강화	자치단체 혁신역량 강화	문화관광·환경 정책역량 강화
목적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전시산업 육성 전략 지역혁신체계 구축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	전통산업, 어메니티, 스포츠, 축제, 디자인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농촌체험관광 전략 환경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화산업 육성과 도심 재개발 전략 국내외 기업유치 중소기업 중심 전략 산업 육성	문화도시 육성과 관광산업 진흥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전통 문화역사자원 활용 지역혁신 농업혁신클러스터
Work shop	혁신 클러스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	혁신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혁신	중소도시의 기업유치전략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 전략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친환경적 도시개발
대상	혁신클러스터 관계자 혁신리더 균형위	기초자치단체 혁신 관계자 혁신리더 균형위	광역자치단체 혁신 관계자 혁신리더 균형위	지방자치단체 혁신 관계자 혁신리더 균형위
인원	20명 이내	20명 이내	20명 이내	20명 이내
기간	10/12~10/21 9박 10일	9/22~9/30 8박9일	10/12~10/22 10박11일	10/12~10/21 9박10일
국가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일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덴마크
방문도시와 연수요지	Roma : 기술혁신 기업 ONIX Ciena :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 Modena : Emilia-Romagna 섬유 산업단지 Sassuolo : 세라믹 클러스터 활성화 Zermatt : 자동차 없는 환경교통정책 Saas Fee : 관광 인프라 확충 Biel : 시계산업 혁신 Langenthal :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 Tuttlingen : 의료기기 클러스터 Stuttgart : 자동차 클러스터 Frankfurt : 전시산업	센다이 : 디자인 국제공모전을 활용한 전통산업혁신 후타바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혁신 동경 : 부도심 및 공장지역 개발 난토 : 문화축제를 통한 도시활성화 후쿠이 : 전통산업과 디자인의 결합 기타큐슈 : 환경산업 육성 전략 유후인 :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 후쿠오카 : 도시경관 혁신 및 낙후지역 활성화	Dublin :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Powys : 환경테마 혁신전략 Dockland : 기업특구 개발 전략 London :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방문 Vincennes : MARKET TOWN 재개발 Paris : 도시공원과 문화산업 Lyon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사례	Luzern : 문화관광 육성 전략, 문화 컨벤션 센터 방문 Fluelen : 알프스 수질관리 시스템 Altendorf : 역사인물을 테마로 한 관광전략 Simmonsald : 농촌생태 체험관광 Freiburg : 환경교통정책, 태양 에너지 보급 시스템 Eckernfoerde : 환경기술센터 방문 Horsens : 농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돈육 가공처리장

※ 대상자의 요구와 현지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4. 참가대상 및 지원내용

참가 대상	○ 지 자 체 : 신활력지역사업 담당, 지방혁신분권 및 혁신협의회 관련자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단체장 비서실장, 기획부서 핵심 실무자 등 ○ 협 의 회 : 광역·기초단체 혁신협의회 실무급 ○ 균 형 위 : 클러스터, 지역개발, 혁신교육 담당자 ○ 혁신기관 : 시범클러스터 추진단 관계자, 산단공 등의 실무·임원급 대학·연구소 및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관련자 ○ 혁신리더 : 균형위에서 육성하고 있는 지역별 혁신리더 ○ 지역혁신전문가 : 핵심 연수주제에 대한 각계 실무급 등
모집인원	참가신청서 도착일을 기준으로 선착순 모집 ○ 100% 자비 부담인 경우엔 모집 완료 후에도 참가 가능 ○ 기관별 2인 이내로 신청인원 제한
연수경비	팀별 선착순 10명에 한해 연수경비의 40%지원 , 이외 참가자 자부담 100%

□ 프로그램별 1인당 연수경비

구분	클러스터팀	지역혁신팀	산업개발팀	문화도시팀
총 연수경비/인 (천원)	3,296	2,808	3,622	3,262
부담경비/인 (천원)	1,978	1,685	2,173	1,957
자부담 비율	60%	60%	60%	60%

5. 참가신청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Fax 또는 Email로 송부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kotef.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신청기간 및 선정결과 발표

클러스터팀	지역혁신팀	산업개발팀	문화도시팀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일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덴마크
9. 5(월)~14(수)	9. 5(월)~7(수)	9. 5(월)~14(수)	9. 5(월)~14(수)
9. 16(금) 발표	9. 9(금) 발표	9. 16(금) 발표	9. 16(금) 발표

※ 해당 발표일 E-mail 개별 통보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박정곤
(Tel. : 02-6009-3165, Fax : 02-6009-3188, E-mail : jgpark@kotef.or.kr)

6.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1) 클러스터 팀

- 팀명 : 클러스터
- 주제 :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
- 목적 :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 연수
이탈리아 제3산업지구 혁신클러스터의 성과와 과제 연수
스위스 시계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혁신 네트워크 연수
독일 자동차 기계 클러스터와 전시산업에 대한 이해
- 요지 : 클러스터 / 혁신기업 / 관광정책 / 지역혁신 / 네트워크 / 전시산업
- 기간 : 10월12일(수)~10월21일(금)까지 9박10일
- 대상 : 혁신클러스터 관계자 10명, 혁신리더(전문가) 1명, 균형위 1명, KOTEF 1명 등 총 13명
- 국가 : 이태리(I), 스위스(S), 독일(D)
- 일정 :

날짜	시간	N	교통(도시)	주요 일정	방문 기관
12 수	13:20	K	항공	인천공항 출발	
	18:00	I	전용버스	로마공항 도착	
	17:00			저녁(현지식)	
	22:00			Roma Hotel 숙박	
13 목	8:00	I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10:00		Roma	기술혁신 기업 ONIX 연수	ONIX(의류회사)
	12:00			점심(현지식)	
	13:00		235.73 km	Roma 출발	
	16:00		Ciena	Ciena 도착	
	16:10			도시 활성화에 성공한 은퇴자 거주단지 연수	Sienna 시청, 은퇴자 거주단지
	18:30			저녁(현지식)	
	19:40		200.92 km	Ciena 출발	
	22:00		Modena	Modena 도착	
	20:30			Modena Hotel 숙박	
14 금	8:00	I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30			Emilia-Romagna 산업지구 지역혁신체계 연수	Modena 시청, 섬유산업단지
	12:00			점심(현지식)	
	13:00		17.44 km	Modena 출발	

	13:40		Sassuolo	Sassuolo 도착	
	14:00			Sassuolo 세라믹 클러스터 연수	Sassuolo 시청
	20:00			저녁(현지식)	
	21:00		17.44 km	Sassuolo 출발	
	21:50		Modena	Modena 도착	
	22:00			Modena Hotel 숙박	
15 토	8:00	I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00		402.09 km	Modena 출발	
	14:00	S	Zermatt	Zermatt 도착	
	14:10			점심(현지식)	
	15:30			자동차 없는 도시 Zermatt의 환경교통정책 연수	Gemeinde Zermatt
	19:00			저녁(현지식)	
	22:00			Zermatt Hotel 숙박	
16 일	8:00	S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10:00		Saas Fee	Saas Fee의 관광기반시설 시찰	Saas-Fee Tourismus
	12:00			점심(현지식)	
	14:00		166.12 km	Saas Fee 출발	
	17:00		Biel	Biel 도착	
	18:00			저녁(현지식)	
	19:00			Workshop - 혁신 클러스터의 현황과 과제	
	22:00			Biel Hotel 숙박	
17 월	8:00	S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30			스와치 그룹의 시계산업 혁신전략	The Swatch Group
	11:00			스와치시계연구소 및 전시장 견학	
	12:30			점심(현지식)	
	13:30		48.56 km	Biel 출발	
	14:20		Langenthal	Langenthal 도착	
	14:30			고유어메니티와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사례 연수	나프베르그란트 답사코스연합
	16:30		33.23 km	Napfbergland 답사 코스 견학	
	19:30			저녁(현지식)	
	20:30		48.56 km	Langenthal 출발	
	21:30		Biel	Biel 도착	
	22:00			Biel Hotel 숙박	
18 화	8:00	S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00		280.88 km	Biel 출발	
	11:40	D	Tuttlingen	Tuttlingen 도착	
	12:00			점심(현지식)	
	13:30			Tuttlingen 의료기기 클러스터 전략	Tuttlingen 의료기기 클러스터

		16:30	123.24 km	Tuttlingen 출발	
		18:00	Stuttgart	Stuttgart 도착	
		18:00		저녁(현지식)	
		21:00		Stuttgart Hotel 숙박	
19	수	8:00	D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00		Baden-Wuerttemberg 기계 자동차 클러스터 연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11:00		독일 공과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수	칼스루에 공과대학
		13:00		점심(현지식)	
		14:00	204.29 km	Stuttgart 출발	
		16:00	Frankfurt	Frankfurt 도착	
		16:10		전시산업의 사령탑 Messe Frankfurt GmbH	AUMA
		18:00		Mercedes Benz 자동차 전시장 견학	Jochem Schuler Niederlassung
		19:00		저녁(현지식)	
		20:00		Workshop -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	
		22:00		Frankfurt Hotel 숙박	
20	목	8:00	D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10:00		건축문화 혁신 위한 독일주택 모델전시장 시찰	Austellung Eigenheim & Garten Bad Vildel
		12:00		점심(현지식)	
		13:00		귀국 준비	
		18:00	LH712	Frankfurt 공항 출발	
21	금	11:30	K 항공	인천공항 도착	
		12:00		정리모임, 해산	

(2) 지역혁신팀

- 팀명 : 지역혁신
- 주제 : 자치단체 도시마케팅 역량 강화
- 목적 : 일본의 지역혁신 성공전략 체험 연수
디자인, 스포츠, 축제를 통한 소도시의 혁신전략 연수
어메니티와 전통산업을 활용한 산업육성 전략 연수
도교와 기타큐슈의 환경산업 육성과 도심 재개발 전략
- 요지 : 도시마케팅 / 스포츠 / 지역축제 / 전통산업 / 어메니티 / 환경산업 /
- 기간 : 9월22일(목)~9월30일(금)까지 8박9일
- 대상 : 기초자치단체 혁신 관계자 10명, 혁신리더(전문가) 1명, 균형위 1명, KOTEF 1명 등 총 13명
- 국가 : 일본(J)
- 일정 :

날짜	시간	N	교통(도시)	주요 일정	방문 기관
22	목	10:20	K OZ 152	인천 공항 출발	
		12:20	J 전용버스	나리타 공항 도착	
		14:00		센다이 숙소 도착, 짐정리	
		15:00	센다이 (仙台)	디자인 국제공모전을 활용한 전통산업혁신 사례 연수	센다이시 산업교류센터
		19:00		저녁(료칸)	
		21:00		센다이 료칸 숙박	
23	금	8:00	J 전용버스	아침(료칸)	
		9:00	99 km	센다이 출발	
		10:30	후타바	후타바 도착	
		11:00	(雙葉)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 성공사례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J빌리지
		14:00		점심(J빌리지 식당)	
		16:00	261.3 km	후타바 출발	
		19:00	동경	동경 도착	
		19:30	(東京)	저녁(한식)	
		22:00		동경 Hotel 숙박	
24	토	8:00	J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10:00		테마, 관광, 쇼핑을 결합시킨 동경의 부도심 개발	오다이바 상업지구
		12:00		점심(현지식)	

				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심 재개발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
				저녁(현지식), 일정 안내	
				동경 Hotel 숙박	
25 일	8:00	J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00		416.3 km	동경 출발	
	13:00		난토시	토가무라 도착	
	13:30		(利賀村)	점심(현지식)	
	15:00			세계 연극제, 메밀박람회 관련시설 시찰	세계연극제, 세계메밀박람회 추진위원회
	18:00			저녁(현지식)	
	20:00			Workshop -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	
	22:00			토가무라 민박 체험	
26 월	8:00	J	전용버스	아침(민박)	
	9:00			지역축제를 테마로 한	난토시청
				지역활성화 전략	
	11:00			토가 문화예술공원 시찰	토가문화예술공원
	12:00			점심(현지식)	
	13:00		167 km	토가무라 출발	
	15:00		후쿠이현	후쿠이 도착	
	15:10		(福井)	전통상품에 디자인을 결합한 문화상품 판매 전략 연수	후쿠이현 나이프 빌리지
	18:00			저녁(현지식)	
	22:00			후쿠이 Hotel 숙박	
27 화	8:00	J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00		신간센	후쿠이 출발	
	12:00		759.3 km	점심(식당차)	
	14:00		기타큐슈	기타큐슈 도착	
	14:30		(北九州)	환경산업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산업재구조화 연수	기타큐슈시 환경국 환경산업정책실
	16:30			기타큐슈 환경산업단지 시찰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연구소 히비키리싸이클단지
	19:00			저녁(현지식)	
	20:30		178 km	기타큐슈 출발	
			유후인	유후인 도착	
	22:00		(湯布院)	유후인 료칸 숙박	
28 수	8:00	J	전용버스	아침(료칸)	
	9:00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연수	유후인군청
	12:00			점심(현지식)	
	13:00			유후인 주요 문화관광시설 시찰	
	16:00			Workshop -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혁신	
				저녁(료칸)	
29 목	8:00	J	전용버스	아침(료칸)	
	9:00		122.1 km	유후인 출발	
	10:40		후쿠오카	후쿠오카 도착	
	11:00		(福岡)	아크로스 후쿠오카 옥상조경 시찰	후쿠오카 시청, 아크로스 후쿠오카
	12:00			점심(현지식)	
	13:30			시사이드 모모치의 주민참여형 도심녹화 연수	시사이드 모모치 AB지구 주택단지
	16:00			국제적 건축공모전을 통한 경관형성 연수	도심집합주거단지 NEXUS
	19:00			저녁(현지식)	
	22:00			후쿠오카 Hotel 숙박	
30 금	8:00	J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00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 현장 연수	캐널시티 하카다
	12:00			후쿠오카 공항 도착	
	13:45		항공	후쿠오카 공항 출발	
	15:10	K	인천	인천공항 도착	
	16:00			정리모임, 해산	

(3) 산업개발팀

- **팀명** : 산업개발
- **주제** : 자치단체 혁신역량 강화
- **목적** :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도시개발 전략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유치 전략과 향후 과제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의 산학연 네트워크 연수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수
- **요지** : 기업유치 / 수출전략 / 생태공원 / 클러스터 / 소도읍 / 전통산업
- **기간** : 10월12일(수)~10월22일(토)까지 9박 10일
- **대상** : 광역자치단체 혁신 관계자 10명, 혁신리더(전문가) 1명, 균형위 1명, KOTEF 1명 등 총 13명
- **국가** : 아일랜드(I), 영국(E), 프랑스(F)
- **일정** :

날짜	시간	N	교통(도시)	주요 일정	방문 기관
12 수	9:45	K	AF 267	인천 공항 출발	
	14:40	F		Paris Charles De Gaulle 공항 도착	
	16:15			Paris Charles De Gaulle 공항 출발	
	17:15	I	Dublin	Dublin 공항 도착	
	19:00		전용버스	숙소 도착, 짐정리	
	20:00			저녁(현지식)	
	21:00			일정 안내	
13 목	22:00			Dublin Hotel 숙박	
	8:00	I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9:00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연수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12:00			점심(현지식)	
	14:00			아일랜드 국제물류센터 시찰	국제물류센터
	18:00			저녁(현지식)	
	23:30			Dublin Hotel 숙박	
14 금	8:00	I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9:00		175.82 km	Dublin 출발	
	12:00		Tipperary	Tipperary 도착	
	12:10			점심(현지식)	
	13:40			외자 바이오 기업의 수출 마케팅 전략	Merck sharp & Dohme(irl.)
	18:00			저녁(현지식)	

	19:30		175.82 km	Tipperary 출발	
	22:00		Dublin	Dublin 도착	
	23:00			Dublin Hotel 숙박	
15 토	8:00	I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10:00		선박	Dublin 출발	
	12:00	E	Holyhead	Holyhead 도착	
	12:20			점심(현지식)	
	14:00		234.46 km	Holyhead 출발	
	18:00		Powys	Powys 도착	
	19:00			저녁(현지식)	
16 일	22:00			Powys 생태테마공원 CAT 숙박	
	8:00	E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9:00			폐광촌을 환경메카로 만든 혁신전략 연수	Powys 시청
	12:00			점심(현지식)	
	14:00			Machynlleth의 생태테마공원 CAT 견학	CAT
	19:00			저녁(현지식)	
	20:00			Workshop - 중소도시의 기업유치전략	
17 월	22:00			Powys 생태테마공원 CAT 숙박	
	7:00	E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8:00		315.98 km	Powys 출발	
	12:00		London	London 도착	
	12:20			점심(현지식)	
	13:40			런던의 기업특구 개발 전략 연수	런던도클랜드 개발공사, 런던 시청
	16:30			도클랜드 재개발 현장 시찰	Tours of Docklands
18 화	19:00			저녁(현지식)	
	22:00			London Hotel 숙박	
	8:00	E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9:30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연수	캠브리지 대학
	12:00			점심(현지식)	
	13:30			통신기업 Mercury 의 경영전략 연수	Mercury Communication Ltd.
	17:42		철도 UST	London Waterloo Int. 역 출발	
19 수	19:00		455.67 km	저녁(식당차)	
	21:17	F	Paris	Paris-Nord Eurostar 역 도착	
	22:00			Paris, Hotel De Ville v숙박	75176 Paris. R.P
	8:00	F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9:30			소도심 육성전략인 MARKET TOWN 재개발 연수	Vincennes 시청
	12:00			점심(현지식)	
	13:00			유럽형 도시공원의	시트로엥 공원

				경관조성 계획 연수 가난한 예술가들이 참여한 문화공간 활성화 전략 연수 실험적 건축물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전략 연수	로베르노의 집 퐁피두센터
				저녁(현지식)	
				Paris, Hotel De Ville v숙박	75176 Paris. R.P
20	목	8:00	F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10:00		철도TGV	Paris Lyon 역 출발
		11:55		462.83 km	
		12:00	Lyon	Lyon Part Dieu 역 도착	
		13:00		점심(현지식)	
		16:00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리옹 이전 공공기관 국립과학연구소 방문	Lyon 시청 국립과학연구소
		18:00		저녁(현지식)	
		20:00		Workshop -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 전략	
		23:00		Lyon Hotel 숙박	
21	금	8:00	F	전용버스	기상, 아침(호텔식)
		9:00		항공	Lyon 공항 도착
		11:00		AF 7411	Lyon 공항 출발
		12:10			Paris Charles De Gaulle 공항 도착
		13:15		AF 264	Paris Charles De Gaulle 공항 출발
22	토	7:05	I	대중교통	인천공항 도착
		9:00			정리모임, 해산

(4) 문화도시 팀

- 팀명 : 문화도시
- 주제 : 문화·관광·환경 정책역량 강화
- 목적 : 스위스의 문화도시 전략과 관광산업 진흥 시스템 연수
기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독일의 환경도시 연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전략 연수
덴마크 농업 자동화 클러스터 연수
- 요지 : 문화도시 / 환경도시 / 태양에너지 / 관광정책 / 농업클러스터
- 기간 : 10월12일(수)~10월21일(금)까지 9박 10일
- 대상 : 지방자치단체 혁신 관계자 10명, 혁신리더(전문가) 1명, 균형위 1명, KOTEF 1명 등 총 13명
- 국가 : 스위스(S), 독일(G), 덴마크(D)
- 일정 :

날짜	시간	N	교통(도시)	주요 일정	방문 기관
12	수	14:00	K	항공	인천 공항 출발
		18:00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9:00	G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20:30	S	Zurich	취리히 공항 도착

		18:10 22:00		저녁(현지식) Linthal Hotel 숙박	
14	금	8:00 9:00 12:00 12:20 14:00	S 전용버스 260.06 km G Simonswald	아침(호텔식) Linthal 출발 Simonswald 도착 점심(현지식) Zweitaelerland'의 농촌 그린투어리즘 연수	Elztal & Simonswaeldertal Tourismus GmbH, Simonswald 시청
		18:00 22:00		저녁(현지식) Simonswald 민박	
15	토	8:00 10:00 12:00 14:00 17:00 20:00 22:00	G 전용버스 35.12 km	아침(민박) 흑림지역의 독창적 박물관 시찰 점심(현지식) Simonswald 그린투어리즘 체험 Workshop -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저녁(현지식) Simonswald 민박	흑림농가박물관, 뼈꾸기 시계박물관
16	일	8:00 9:30 10:00 10:10 12:00 14:00 16:00 19:00 20:00 20:30 22:00	G 전용버스 26.54 km Freiburg 26.54 km Simonswald	아침(민박) Simonswald 출발 Freiburg 도착 친환경 건축 Hotel Victoria와 설리어 베르크 Sola 마을 점심(현지식) 생태하천 Dreisam 강 시찰 드라이잡경기장, 헬리오트롭, 매립장, 란드바스발전소 견학 저녁(현지식) Freiburg 출발 Simonswald 도착 Simonswald 민박	Hotel Victoria Freiburg 시청 헬리오트롭
17	월	7:00 8:00 8:30 9:00 12:00 13:00 15:00 17:00 18:00 19:35 20:45 21:00 23:00	G 전용버스 26.54 km Freiburg 199.12 km Stuttgart 항공 LH153 Hamburg	아침(민박) Simonswald 출발 Freiburg 도착 Freiburg시의 환경교통정책 연수 점심(현지식) 태양전지판 생산회사 솔라파블릭 방문 Freiburg 출발 저녁(현지식) Stuttgart 공항 도착 Stuttgart 공항 출발 Hamburg 공항 도착 Hamburg 공항 출발 Hamburg Hotel 숙박	Freiburg 기술시청 Solar-Fabrik AG
18	화	8:00	G 전용버스	아침(호텔식)	

		9:30 11:30 12:00 13:00		117.42 km Eckernforde	Hamburg 출발 Eckernforde 도착 점심 (현지식) 주민참여로 지역산업 혁신을 이룬 에칸페르테 연수	에코센터 TOEZ, Eckernforde시청
		16:00 18:00 19:00 20:00 22:00	D	172.91 km Vijle	Eckernforde 출발 Vijle 도착 저녁 (현지식) Workshop - 친환경적 도시개발 Vijle Hotel 숙박	
19	수	8:00 9:00 9:30 10:00 12:00 13:30 17:00 18:00 19:00 22:00	D	전용버스 32.30 km Horsens 32.30 km Vijle	아침 (호텔식) Vijle 출발 København 도착 농산식품산업 자동화단지의 클러스터 전략 연수 점심 (현지식) Danish Crown 돈육가공처리공장 견학 Horsens 출발 Vijle 도착 저녁 (현지식) Vijle Hotel 숙박	Agricon Valley Secretariat, Bygholm 농업기계연구소 Danish Crown 돈육가공처리공장
20	목	8:00 9:00 12:00 13:00 15:00 17:00 18:10 19:00	D	전용버스 234.03 km København G	아침 (민박) Vijle 출발 København 도착 점심 (현지식), 귀국 준비 København 공항 도착 København 공항 출발 frankfurt 공항 도착 frankfurt 공항 출발	
21	금	11:00 13:00	K	항공	인천공항 도착 정리모임, 해산	

※ 세부 프로그램은 참가 대상자의 의견과 현지 방문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프로그램별 주요 연수내용

(1) 클러스터 팀



이탈리아

모데나 (Modena)

10/12 ~ 14

주제 : Emilia-Romagna 산업지구 지역혁신체계 연수

Modena는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의 중심도시로 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산업지구를 개발. 제2차 세계대전의 황폐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 대해서도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비첨단 산업 분야에서 유연적 생산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나 최근 들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산업은 식료품, 기계, 타일, 섬유, 의류, 바이오

사수올로 (Sassuolo)

10/12 ~ 13

주제 : Sassuolo 세라믹 클러스터 연수

유럽 최대의 세라믹 타일 생산지. / 모데나시 남쪽 20km지점에 위치. / 인구 4만. / 타일산업 클러스터는 사수올로시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인근 피오라나나 마나넬로 그리고 레지오 에넬리아군으로 확대.

70년대 타일 생산공장의 기계화를 계기로 대량생산 체계에 돌입, 성장 가속화 이룸. / 페인트, 에나멜, 포장 등 타일 관련 분야들이 지속적으로 집적되어 생산 전문화와 분업구조를 형성.

전문기업들의 집적과 재료산업의 집적으로 타일생산공정의 혁신을 이룬 것이 지역혁신의 계기. / 전통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스위스

체르마트(Zermatt)

10/15 ~ 14

주제 : 자동차 없는 도시 Zermatt의 환경교통정책 연수

Zermatt는 마터호른을 끼고 있는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 / 인구는 5천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지만, 발리스주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유치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마치나 전기자동차만 통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매력 때문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음. / 관광객들은 체르마트에서는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리조트를 찾아갈 때 버스나 승용차 대신 '비싼' 등산 열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체르마트의 자연도 지키고 돈도 버는 '자동차 없는 교통정책'은 일석이조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 '자동차없는 도시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체르마트시의 교통 환경 복지시책을 연수하면서 인재유지를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아이템 연수

빌(Biel)

10/15 ~ 17

주제 : 시계의 도시 Biel과 스위치 그룹의 시계산업 혁신전략 연수

시계는 이미 시간을 재는 기계에서 인간의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패션 / 80년대 당시 70억달러에 불과하던 세계 시계 시장은 130억달러로 성장 / 스위치는 시계를 브랜드화된 액세서리로 탈바꿈시킨 장본인 / 스위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5%, 연간 매출액은 3조5000억원

예술상품에 창의적인 첨단 기능을 붙이면 신규 시장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는 CEO의 경영철학에 따라 시계라는 도구에 예술을 덧씌우고, 거기에 또 다른 첨단 기능을 붙여, 시동거는 열쇠시계, 신용카드·인터넷 시계등 첨단 제품을 개발 중인 스위치 본사를 방문 시계산업 혁신의 생생한 사례 연수

□ 고유어메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사례 연수

Napfbergländ 일대는 농촌의 낙후된 지역으로 이농과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심지어 이민 가는 사례도 속출했던 지역 /

Napfbergländ 답사코스는 알프스의 출발지인 나프산지 내 Emmental 지역과 Entlebuch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 문화, 풍습, 특산물의 차이를 프로젝트의 중심테마로 타 지역과 협력이 가능한 연합프로젝트로 추진 /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역사유적을 보호하며, 칸톤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그렌즈파드란 캐릭터로 보존하는데 목적. / 97년 9월부터 크게 구분하여 5개의 답사길 조성. / 디자인의 메카, 바로크양식 수도원, 습지대 생태환경, 중세 성벽과 문화유적, 꽃의 도시, 치즈산업, 전통시가지, 역사도시, 박물관, 겨울 레저스포츠, 관광휴양도시, 숙박시설 등으로 재 정비

나프베르그란트답사코스연합

산재하는 어메니티들의 마케팅 촉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연합형 지역혁신체계의 중심기구 성격의 나프베르그란트답사코스연합 창립 / 알프스 지역에서 덜 매력적인 곳이었지만,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명소들을 연계하여 식당, 호텔, 주말농장 등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활성화에 기여

□ Napfbergländ 답사 코스 견학

스위스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혁신 프로그램 'Rigio Plus'를 1997년부터 10년간 시행 / 대학교수, 법률가, 마케팅 전문가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역의 참신한 프로젝트를 지원

2007년 7월까지 5천7백만 달러 투입 예정 / 전체 99개 프로젝트 중 30개의 사업이 완료, 69개 진행 중

Entlebuch, Langnau im Emmental, Langenthal 중 한 곳을 찾아 직접 답사코스를 둘러 보며 지역의 문화 역사자원과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혁신사례에 대한 연수



독일

튀틀링겐(Tuttlingen)

10/18

주제 : Tuttlingen 의료기기 클러스터 육성전략

튀틀링겐 경제발전위원회는 Tuttlingen지역 내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2000년 설립 / 세제 등 제도적인 지원활동과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활동 활발 /

Tuttlingen은 지역환경에 적합한 산업을 잘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 / 300년 전 광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오다,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150여년 전부터 의료기기 산업으로 전환하여 성공을 거둠. 전 세계적으로 Tuttlingen이라는 도시 이름이 상표가 될 정도로 외과용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발달해 있음.

Tuttlingen 경제발전위원회

튀틀링겐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발전요인과 우수인력 유치 활동에 관한 연수 추진.

슈투트가르트(Stuttgart)

10/18 ~19

주제 : Baden-Wuerttemberg 기계 자동차 클러스터 연수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아름다운 흑림지대(Schwarzwald)에 있는 독일을 대표하는 산업지역으로 오랜 수공업의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이 바덴-뷔르템부르크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음.

독일 연방주 가운데에서도 경제력이 최고 수준이며, 뼈꾸기 시계의 생산전통에서부터 유래한 흑림지대의 정밀공업과 자동차산업은 가장 유서깊은 전통산업

산업기반의 약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경험을 했으나, 1990년대 후반 세계 자동차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회생되고 있고, 현재 성숙 자본재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기반 확충에 노력.

기계, 자동차, 금속, 전기 등 4대 업종의 비중이 57.1%(2001년 기준)에 달하며, 의료 측정 제어 광학제품의 비중도 높은 편

향후과제는 신산업 지원 육성 기구 설립(영상 미디어 조합, 생명공학 분야 지원), 기존 제도 개선 기구 설립(기술대학 시스템 개선, 지역개발공사를 통한 수평적 연계 강화), 자본재 산업부문에 편향된 지역경제 구조개선, 비즈니스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중 강화. IT, BT 등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의 생산 및 혁신 기반 강화, 기업간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 등임

다임러 크라이슬러 전시관

벤츠 공장은 독일 남부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근교 진델핑겐 지역, 그리고 북부의 브레멘 지역에 있는데, 슈투트가르트 지역에는 포르쉐 박물관, 벤츠 박물관, 다임러 생가, 벤츠 생가 등이 몰려 있음.

□ 공과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수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 있는 곳. /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로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인구 58만 5천명) 만하임(30만 8천명), 칼스루에 (27만 9천명) 등이 중심지역

면적 35,752km² / 중소규모 클러스터의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라인과 기술개발, 다양한 조직과 기구 및 유기적 네트워킹이 특징.

칼스루에의 핵연구센터, 하이델베르크의 암연구센터, 막스-프랑크 연구소 등이 있고 9개 종합 대학교와 39개의 전문대학, 130개의 각종 연구소가 입지.

칼스루에 공과대학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Zeiss, SAP, 포르쉐와 총사업체수의 99.8%, 총취업자수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업원수 500인 미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형성.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데, 지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9년 현재 3.9%로 독일 전체(2.4%)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EU 전체(1.8%)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

베를린(Berlin)

10/20

주제 : 전시산업의 사령탑 Messe Frankfurt GmbH

독일은 세계 전시컨벤션산업의 30.9%를 차지하는 박람회 국가. / 생산유발효과는 약 24조 5700억원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며 중심은 프랑크푸르트.

해마다 15회 정도 대규모 국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박람회 전통은 무려 750년 동안 쌓인 것으로 독일 해센주 세수 가운데 95%가 전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정도.

독일 국내 전시산업 지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각 주나 시 정부가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시장 운영은 지역별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역은 Messe Frankfurt GmbH가 책임. / 전시산업에 종사할 인재는 라벤스부르크 직업전문대학에서 3년 가정으로 양성 / 독일전시산업 육성 전략 연수

AUMA(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

전시장 운영기구 연합체인 독일전시산업협회(AUMA)는 독일전시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집행기구로서 주요 기능은 독일 전시산업의 이익대변. / Messe Frankfurt GmbH는 헤센 주 정부와 프랑크푸르트가 각각 40%, 60%의 지분을 갖고 있음. / 전시주최자들의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 및 조정기능 정보센터 역할

(2) 지역혁신 팀



일 본

센다이

9/22

주제 : 디자인 국제공모전을 활용한 전통산업혁신 사례 연수

일본 동북부 곡창지대인 미야기현은 양질의 쌀과 쌀로 빚은 술(청주)이 유명한 지역으로 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해 디자인을 이용, 지역전통산업의 발전을 이룸.

'술을 즐기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95년 12월1일 미야기현 센다이시 산업교류센터에서 처음으로 술과 관계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국제디자인 공모전 개최, 특산물을 이용한 폭넓은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술문화 회의, 일본 각 지방의 특산물 전시, 술과 관련된 전통기물 판매, 미야기현 곡주의 전시 판매, 시음 장터 등) 추진

미야기현 산업교류센터

디자인 국제 공모전은 미야기현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지역환경의 국제화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해를 거듭할 수록 다양한 상품개발로 이어져 지역고유상품의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후타바

9/23

주제 :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혁신전략

후타바(雙葉)군 내 49만m² 부지 위에 있는, 아시아 최초의 대형 축구전용훈련장으로 교통이 불편하지만 축구라는 주제로 특화시설을 잘 만들어 지역혁신에 성공. / 국가대표 훈련장으로도 쓰이는 J빌리지는 12개의 축구장과 호텔 등 편의시설이 있고,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 선수까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함.

후쿠시마현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J빌리지를 유치했는데, 지역주민 고용 효과가 크고, 관광지로써의 지명도가 높아지는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프랑스,독일의 훈련센터와 같은 본격적인 '축구마을'을 만들려는 일본축구협회,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후쿠시마현 정부, 지역에 봉사하려는 도쿄전력의 뜻이 합쳐져 1997년 7월 조성. 현정부가 내놓은 부지 위에 도쿄전력이 2년 동안 1백30억엔(약 1천3백억원)을 들여 완공한 후 현에 기증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 도쿄전력이 J빌리지를 기증한 것은 하루 생산전력 6만kw의 25%를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자는 취지.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J빌리지

천연잔디 구장 11개와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전용 스타디움 1개, 지붕이 있는 전천후 연습장 1개, 4백m 트랙이 있는 인공잔디 구장 1개, 모래축구장 1개, 5인용 경기장 2개 등이 있고, 1백60명이 들어가는 컨벤션홀에서는 지도자·심판 연수회가 열리고 있음.
J빌리지는 무농약 잔디관리로도 유명. 농약 대신 '한약재찌꺼기'를 사용하여 잔디 관리. 일본 각지의 골프장 관리인들이 이곳에서 연수를 받기도 함. 원천기술은 독일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데, J빌리지 관리인도 이곳에서 연수.

동경

9/24

주제 : 테마, 관광, 쇼핑을 결합시킨 동경의 부도심 개발 시찰

동경 도심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오다이바는 옛날 막부시대 외침에 대비한 포대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위락 쇼핑시설 건설 / 관광과 쇼핑을 결합한 신도시로 곳곳에 Panasonic Center 등 일본 유명 기업의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전시물을 이용한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관광시설 배치하고 있는데, 테마를 활용한 상업공간, 기업도시의 도입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여성을 위한 테마 파트인 비즈니스폴트판, 메가@웹으로 불리는 도요타자동차사의 시티쇼케이스, 빛의 세계 등 서로 개성이 다른 확실한 테마에 의한 운영으로 평일에도 관광객과 쇼핑객들로 붐비는 동경의 새로운 명소.

오다이바 상업지구

각 빌딩마다 자기만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후지텔레비전 본사 빌딩에 있는 방송국 테마관에서는 TV방송을 소재로 방송장비, 스튜디오는 물론, 연예인에 대한 정보도 얻고 체험도 가능하며, 오다이바 해상공원 앞의 텍스 도쿄비치는 대형선박을 모델로 건설되어 쇼핑과 레스토랑 등 여가 숲이 입주.

□ 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심 재개발 시찰

94년에 완성된 도쿄도 시부야구와 메구로구 사이에 있는 삿쵸로 맥주 에비스 공장의 부지 8.23ha를 개발한 사례 연수

도시기능의 갱신, 도시주택의 공급, 서구의 정원도시 건설등을 목표로 하여 건설. 대표적인 대규모 단지식 복합개발로 유명. 여기에는 주거, 업무, 상업, 숙박, 문화오락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

부지면적의 60%를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고 차량의 진입과 주차공간등을 완전 지하화하여 보차분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상공간을 안전하고 활성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

활성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요행축에 상업시설과 음식점, 휴게시설등을 집적한 일련의 Chateau Square, Central Square, Sloped Promenade, Marionette Clock Square 등을 만들고 중심광장에는 지붕을 씌워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에비스수 가든 플레이스

에비스수역과 에비스수가든플레이스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의 움직이는 도로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15m의 도로를 이용한 삿쵸로본사기념관과 상업, 오피스, 다목적홀 등 도시성이 강조되는 시설들은 2가구에 집합시키고, 주택과 호텔등 좋은 거주환경이 요구되는 시설들은 분리하여 1가구의 녹지공간에 건설하여 도시형 영역과 주거부 영역을 분리.
주거동은 중정을 갖는 타워형으로 계획하고 실질 거주계층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비율을72%로 높여 건설.

난토

9/25

주제 : 지역축제를 테마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

원래 토가무라는 심산산골의 너무나 빈곤한 자치단체였는데, 지역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 내에 있는 폐농가의 일본 전통식 건물인 합장가옥들을 이전하여 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와 교류하는 거점으로 활용.

이것이 인연이 되어 세계적 연극제인 '토가 페스티벌'을 1982년부터 개최했는데 이 작은 마을에 1만명 운집, 관광객 보다 주민들이 더욱 놀라 자각하게 되고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계절마다 축제를 개최.

봄 사자축제, 여름 토가페스티벌, 가을 산촌축제, 겨울 메밀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일본 최초로 '세계메밀박람회'를 열어 산업화에도 성공.

난토시청

토가무라 인구는 1,000명, 60년부터 70년까지 전체 인구의 40%가 이농, 임야가 94%인 전형적인 산골마을로 세계연극제와 세계메밀박람회로 세계를 상대로 한 지역활성화 추진.

토가무라는 2004년 11월 일근 촌과 함께 난토시로 합병

후쿠이

9/26

주제 : 전통상품에 디자인을 결합한 문화상품 판매 전략 연수

전통공예에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접목한 혁신적인 노력으로 개성이 강한 고부가가치 특산물 생산 / 매년 가위와 나이프를 주제로 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전통문화상품을 현대적인 생활품을 발전시키는데 성공

나이프 빌리지라는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이룸 / 디자인, 축제, 테마 마을 조성으로 지역 전통산업을 발전시킨 사례 연수

후쿠이현 나이프 빌리지 / 후쿠이현청

후쿠이현은 일본의 우수 철가공제품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부엌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의 대표적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산업구조와 소비자 요구가 변화하면서 철제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현과 지역출신의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살리기 운동 전개.

주제 : 환경산업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산업재구조화 연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국제무역도시. / 1901년에 신일본 제철이 들어서면서 철강, 화학, 금속, 요업 등의 소재형 산업이 집적. / 최근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산업용 로봇이나 IC관련 제품,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이 활성화 / 산학관 연대를 통한 공동연구, 업종 교류 및 그룹에 의한 신제품 개발이 이뤄지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양화 진행.

□ 기타큐슈 환경산업단지 시찰

민관이 일체가 되어 심각한 공해문제를 극복하고 일본 최초로 에코타운으로 지정. / 공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진 시민, 기업, 행정의 제휴를 기반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 /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 히비키리싸이클단지 등 기타큐슈의 환경산업 연수.

주제 :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연수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전원풍경, 농법생산과정을 지켜내면서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자연경관 보전방식의 지역만들기 사례. / 온천도시 벳푸가 대규모 온천 개발로 지역활성화에 성공하자 유후인 주민들도 ‘벳푸와 달라야 한다, 조용한 휴양지를 만들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만들기를 시작. /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곳 지역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단체를 결성, 댐 건설 반대운동, 보양온천만들기, 윤택한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운동 등을 전개.

농촌 어메니티를 보전하기 위해 ‘소한마리목장주인’ 운동을 전개하고, 고유의 육우 상표를 개발했으며 ‘소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 등을 개최. / 1976년에는 ‘영화관 하나 없는 마을, 그러나 그곳에 영화가 있다’라는 표어로 ‘유후인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언론을 통한 지역알리기에 성공. / 1991년 지역 어메니티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 숙박업소연합, 관광연합 등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벳짚공급보장을 통한 농촌 경관보존프로그램'을 시작. / 유후인의 관광산업은 전통적인 농촌경관과 온천시설에 기반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사라져가는 전통 영농방식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1만2천의 작은 도시 유추인의 관광객은 1965년 7만명에서 420만명으로 증가했고 연중 1800억원의 관광소득을 올려 큐슈의 가장 가난한 마을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

유후인균형**○ 성공요인**

1. '옆집과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차별화 전략 : 옆집은 벳푸 온천. 벳푸가 시끄럽고 난개발이 진행된 곳이라면 유후인은 정반대의 길을 택함.
2. '있는 자연과 영농생활을 지킨다.'는 보존 정신 : 마을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농촌 경관을 만들어 주는 전통적인 영농방식을 보존하는 것으로 관광상품을 만듦.
3. '선진국에서 철저히 배운다'는 학습효과 : 마을가꾸기를 시작하기 전 독일 등 선진 농촌을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수집.

기차역 대합실을 이용해서 꾸며놓은 갤러리, 전통공예품을 볼 수 있는 민예촌, 일본 전통식 여관과 온천탕 등, 유후인은 마을 자체가 예술. / 1950년대 유후인보다 잘 살던 마을들은 상당수가 개발과정에서 도태됐지만, 고유의 정신과 자연을 지켜낸 유후인은 지속적으로 발전.

□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 현장 연수

캐널시티 하카타는 1996년 4월에 문을 연 캐널시티는 '도시 속의 또 하나의 도시'로 알려진 쇼펍몰로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이 모인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미래 도시형 공간. / 최고급 호텔, 유명상점, 다양한 시설로 가득한 복합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고, 시설의 중심부에는 운하가 흐르고 있으며, 최신기술의 분수가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물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음. 오염되고 낙후된 도심지역을 성공적으로 탈바꿈시킨 모범적인 사례

주제 : 주민참여형 도심녹지화 정책 연수

녹지협정에 따라 조성된 시사이드 모모치 지구 주택들은 생울타리와 조경수 덕분에 마치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연결되어 있고, 후쿠오카 도심의 호수공원인 오히리공원 주변 숲 사이로 정수처리한 물이 인공적으로 감돌아 흐르고 있음. / 주민과 시청이 녹지협정을 맺어 조성한 후쿠오카 시사이드 모모치지구A B지구 주택단지를 건축하면서 날로 콘크리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심 마을 녹화 대안 연구

시사이드 모모치 AB지구 주택단지

시사이드 모모치는 후쿠오카시 사와라구에 위치한 도심부에 가까운 해변공원으로 해양 스포츠의 거점. / 심볼 녹지축, 해변 녹지축, 하천 녹지축, 거리 중추축, 지구연계축, 도시문화축으로 구성된 경관형성계획과 주민협약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연수.

□ 아크로스 후쿠오카 옥상조경 시찰

아크로스 후쿠오카는 국제회의장, 도서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의 건물로 첨단 옥상녹화기술을 보여주는 모델로 알려져 있음. / 콘크리트 건물이 식물로 에워쌓여 있어 열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사무실내 온도가 외부온도에 영향이 없어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전형 /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옥상조경시스템과 국제회의장 등을 견학

□ 국제적 건축공모전을 통한 경관형성 연수

'NEXUS(NEXT US)'는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물려준다는 의미. / '아시아의 거점도시'를 목표로 민관협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집합주거단지 건설. / 후쿠오카시와 종합개발업자가 파트너십을 형성, 해안가로개발계획과 부도심지구 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개성 창출이라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아래 국제 현상 공모전 방식으로 사업 진행. / 해안가 총길이 150미터에 이르는 도로에 공동주택과 근린 상가시설을 조성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참여시킨 이벤트를 추진하고 '세계의 건축가 거리' 조성에 성공. / 지역을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의 경연장으로 활용, 세계적으로 지역이미지를 넓혀 가는 계기 마련.

도심집합주거단지 NEXUS

'넥스스월드프로젝트'로 명명한 부도심개발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성적이며 참신한 고급 집합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영역에서는 가로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성공. /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자'는 슬로건 탄생.

(3) 혁신도시 팀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10/12 ~ 14

주제 :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연수

아일랜드는 중화학공업이나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은 유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수출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며 설비시설 보다 사람이 중요한 산업을 외자유치 유망산업으로 선정, 전자, 소프트웨어, 건강의료, 금융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산업을 주로 유치함.

성공요인은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 정책당국의 외자 유치 노력(IDA),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성, 높은 수준의 인력, 개방과 관용의 문화. 최신 통신 인프라, 유럽 대비 높은 젊은이의 비율 등을 들 수 있고, 향후과제로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고속도로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아일랜드는 한반도 3분의1크기에 392만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로 2001년 현재 1,237개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외국기업의 고용인원은 13만 8천명으로 아일랜드 전체 고용의 8.4%를 차지.

아일랜드는 1970년 외자유치 전담하는 산업개발청을 설립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외자유치에 주력, 연 평균 9%의 놀라운 경제성장 달성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전략과 전망에 대한 IDA 관계자의 브리핑과 간담회 추진

아일랜드 국제물류센터 시찰

아일랜드는 수년 전부터 건강의료 기업들을 유치해 왔는데, 제약부문에만 130개의 기업이 2만1,000명을 고용하고 연간 18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에 의약품 재료를 공급하는 국제 물류센터도 설립.



영국

포이(Powys)

10/15 ~ 16

주제 : 폐광촌을 환경메카로 만든 혁신전략 연수

창설자 제럴드 모건 그랜빌씨가 1974년 화석연료와 화학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기술, 즉 Alternative Technology를 제창하고 폐광터를 사들여 출발한지 30년, CAT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놀면서 환경적인 사고를 익히는 '생태테마공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운영. / 자연 에너지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생태적인 생활을 지탱해주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실현.

Machymleth의 생태테마공원 CAT 견학

자연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의 집, 자연농법과 자급자족에 바탕을 둔 농업원예코너, 놀이시설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테마공원 CAT를 체험하면서 폐광에서 환경도시로 거듭난 지역혁신의 현장을 연수

런던(London) · 도클랜드(Docklands)

10/17 ~ 18

주제 : 기업특구 개발 전략 연수

기업과 주민이 힘을 합쳐 역사적 건물 보존,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 개최,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유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성공한 사례.

도클랜드는 West India, East India, Millwall 등 7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부두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성이 달라, 이를 보존하면서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전략 수립.

지역사를 남기기 위해 Dock 구조물과 Crane을 상징물로 보존하고 도클랜드 박물관, 도클랜드 경전철을 확충. / 당초 중저소득층용 주택단지로 재개발하려던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면서 브리티시 텔레콤사의 텔리포트계획, 제2금융특구라 할 수 있는 금융센터, 고도정보센터의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고용증가, 주택건설, 편의시설 확충, 도시의 쾌적성 개선이라는 효과를 거두게 됨.

광범위한 주민조직의 저항이 일어나면서 차이의 정치, 대항담론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새

로운 문화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 현재 도클랜드는 기업특구 지정 결과 기업의 입지가 가장 잘 이루어진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연수

영국 동부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R&D 주도형 혁신클러스터이자 캠브리지시를 중심으로 반경 약 15마일내에 입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캠브리지지역(55만명)과 피터버러(15.6만명) 지역으로 구성.

1970년에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설립, 1978년 20여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바이클레이즈 은행의 지원이 자금과 기업자문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1985년에는 첨단기업수가 360여 개로 증가. 생산보다는 연구개발형 기업이 대부분.

1990년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혁신클러스터의 주요한 성장기반으로 작용, 현재 전자정보, 바이오 분야의 1,600여개 기업이 48,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음.

“캠브리지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슬로건 아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프랑스

파리(Paris)

10/19

주제 : 소도시 육성전략인 MARKET TOWN 재개발 연수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전통적인 도심지역으로 프랑스의 전통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 많아 전통건물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개발전략을 세우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성공.

지역차원에서 주민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관련구구에 지방대표가 참여하여 중앙에 지역의사를 반영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 파리 동부 외곽지역에 위치한 고품스런 뱅센느성과 대규모의 숲으로 유명한 도시로 인구는 40,000명. /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고려, 도시의 미래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욕구 반영, 지역주민의 의사 최대한 반영을 원칙으로 추진

□ 유럽형 도시공원의 경관조성 계획 연수

시트로앵 공원은 대도시 주변 산업지구의 재개발 사례로 등장하여 상징적이고 신화적이며 감각적인 공간의 구성과 고급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공원의 울타리 없이 도시속으로 연장되어 인공과 자연의 대비를 통한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많은 이미지들이 연결되고 중첩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양한 주제와 정원공간을 담은 도시공원의 모델이라는 점 때문임.

매력적인 문화공간과 보행자 거리, 옛것과 참신하게 디자인된 새것이 공존하는 환경, 푸른 자연과 쉼터가 어루러진 거리를 시찰하며 미래형 도시계획의 방법론에 대한 연수 추진.

파리시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질 그레망과 알랭 프로보의 설계안을 당선시켰는데, 파리가 요구한 설계조건은 "미적으로 파리가 프랑스와 외국에 미친 영향을 반영할 것과 무엇보다 정원의 역사에 현대적인 트렌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음

1993년에 오픈한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은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회사 시트로앵의 설립자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으로 자동차의 공장이 있었던 세느강가에 위치. 넓은 잔디밭과 비스듬히 가로 지르는 축선, 수로와 작은 주제 정원들, 여러 개의 온실들 그리고 다양한 신화이야기

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도시공원이면서 프랑스 예술의 자부심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듯한 매력적인 공원

□ 실험적 건축물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연수 - 풍피두 센터

현대미술관, 완전히 개방된 대중정보도서관, 산업 디자인 센터, 음악 및 음향 연구센터 등 파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음.

고전적이고 우아한 파리의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건축물. 파이프와 유리관이 복잡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건축물은 철골 구조가 모두 드러나 보여 마치 공장 건물처럼 보임

리옹(Lyon)

10/20 ~ 21

주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대표적인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리권에 대한 고용 및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추진 / 1991년부터 2003년까지 315개 기관 42,600명을 지방으로 이전 / 프랑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로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등 8대 균형거점도시를 지정했으며,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테크노폴(Technopole)을 연계

프랑스 각 지역에 조성된 테크노폴은 지역의 과학기술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대학들과 합동으로 개발된 기술혁신거점 / 그랜드 리옹 테크노폴(Grand Lyon Technopole)은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로 특화

리옹시청과 그랑 리옹 테크노폴을 방문,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수 추진.

리옹 이전 공공기관 국립과학연구소 방문

IT, BT산업으로 특화된 리옹 테크노폴에는 특화산업과 관련있는 국립수의학교, 국립과학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 국립농학연구소의 관련 연구기관이 이전했는데, 이중 국립과학연구소를 방문, 연구원들과 면담 및 시찰 추진

(4) 문화도시팀



스위스

루체른 (Luzern)

10/12 ~ 13

주제 : 루체른시의 문화관광 육성전략 연수

국제음악제가 열리는 국제문화도시로 인구는 7만명 / 스위스 최대의 관광·휴양지 / 8세기부터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 중계지로서 급속히 발전해 왔음. / 문화관광산업 이외에 기계·섬유·식품공업이 발달 / 국제음악제와 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루체른의 문화관광정책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넓히고 건물을 보수하는 것보다도 예술과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

유럽의 작은 보석으로 불리는 루체른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알프스의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기 때문임. /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열리는 국제음악제에는 수만 명의 음악애호가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국제음악제에 참가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부활절(4월)과 추수감사절(11월말)에 별도 음악축제가 열림.

□ 루체른시의 문화컨벤션 센터

국제규모의 음악제를 개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컨벤션 센터. /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등장하고 전 세계에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게 된 것이 모두 이 건물 덕분. / 훌륭한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를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루체른 호수와 인접한 문화컨벤션센터는 물줄기를 공연장 안으로 끌어들여 로비와 콘서트홀 사이에 다리를 놓아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했으며, 평면 형태의 넓은 지붕과 길이 30m짜리 대형 차양은 관객에게 비나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과 함께 끝없이 펼쳐지는 루체른 호수 수평선의 연장선으로 표현, 자연과의 조화에 신경.

루체른시는 다목적 공간인 114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이벤트홀, 컨벤션센터, 박물관, 레스토랑을 갖추는 데 2억500만스위스프랑(약 1660억원)을 투자. /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의

설계로 지어진 1800석의 콘서트홀은 미국 ARTEC사의 러셀 존슨의 음향 컨설팅과 접목되면서 더욱더 유명. / 5층 규모의 높은 천장과 최소한으로 줄인 발코니의 넓이 등 최상의 음향을 위한 각종 배려로 인해 루체른 홀은 '천상의 콘서트 공간'으로 칭송 받고 있음.

알트도르프(Altdorf) 10/13

주제 : 역사인물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육성 전략

스위스 중부 우리주(州)의 주도(州都)로 인구는 8,000명. / 루체른 남동쪽, 로이스강 동쪽 연안에 위치하며, 고무·목공품 공업 발달.

역사인물 빌헬름 텔을 활용한 관광개발정책을 펴고 있음. 1512년부터 이곳 주민의 아마추어연극인 《빌헬름 텔》이 몇년 간격으로 상연. / 텔이 사과를 쏘았다고 하는 장소에는 R. 키슬링이 만든 텔의 동상 건립.

알프스 고개 순례코스 답사

Linhtal - klausenpass(1,948m)-Flueelen으로 이어지는 알프스 고개 순례코스를 답사하면서 알프스의 수질보호시스템 견학 / 관광전용도로가 거의 없어 주민들의 생활도로를 이용하여 관광코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Grimsel 고개, Susten 고개, nufenen 고개, Gottardo 고개 등 2000m를 넘는 고개가 대표적임. / 스위스로 넘어가는 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들 생활도로를 이용하여 관광명소가 아닌 스위스 농촌의 참모습을 보고 이들이 알프스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여 생존하고 또 세계 제1의 복지국가가 되었는지 체험하는 시찰코스



독일

지몬스발트(Simonswald) 10/14 ~ 16

주제 : Zweitaelerland의 농촌 그린투어리즘 연수

독일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 이미 농촌회생과 청소년 인격형성을 위해 그린 투어리즘을 정책적으로 육성 / 프라이부르크 인근 흑림지역은 최근 적극적인 흑림경영을 위해 생태체험관광을 권장하고 있음.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농촌 체험관광의 수요가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린 투어리즘은 '어떤 매력적인 체험프로그램이 있느냐'하는 점에 승패가 달려 있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독일 흑림지역 'Zweitaelerland'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에 관해 관리회사의 브리핑을 듣고 현장 견학을 통해 농촌체험 관광과 민박운영 시스템에 대한 연수

흑림지역의 독창적 박물관 시찰

프라이부르크(Freiburg) 10/17

주제 : 독일의 환경수도, 태양의 도시 Freiburg시의 환경정책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일반 도시보다 10년 이상 앞서가는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 / 자전거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으로 승용차보다 자전거가 빠른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 / 자전거주차장 Mobilia, 보행자 거리 등을 비롯한 인간 중심의 교통 환경정책과 환경도시를 가꾼 행정조직과 제도, 시민들의 환경운동에 대한 연수

□ 생태하천 Dreisam 강 시찰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생태복원 사업의 성공사례 시찰

□ 드라이잠경기장, 헬리오트롭, 매립장, 란드바스발전소 견학

운동장 서쪽 지붕에 대형 태양전지판을 설치한 드라이잡 축구 경기장. 태양을 따라 회전하는 주택 헬리오트롭, 매립된 쓰레기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아이헬 북 지구 쓰레기 매립장, 매립장에서 발생한 가스로 연간 4.5메가와트로 이 지역 인구 8천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란트마서 가스 발전소 방문 견학

□ 태양전지판 생산회사 솔라파블릭 연수

연간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사용 태양전지판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가격을 낮춰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태양전지판 생산회사 솔라 퍼블릭 회사 방문. 주민이 참여하는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에 관한 브리핑과 견학

에칸페르데(Eckernforde)

10/18

주제 : 주민참여로 지역산업 혁신을 이룬 에칸페르데

Okologiezentrum(TOZ) Eckernforde는 행정, 기업, 환경단체, 주민이 연계한 생태기술개발의 핵심 조직으로 설립 후 7년 만에 7개의 벤처를 창업했으며, 건물 자체로도 에콜로지를 멋지게 구현하고 있음. / 에콜로지를 주제로 한 독일 유일의 기술센터이며 41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한 벤처 빌딩이 있음

에칸페르데의 키일거리는 자동차 통행 금지구역인데, 이것은 환경시책이면서 도심상가 활성화 대책이고, 복지정책, 관광진흥정책이기도 함.

자연환경계획에 기초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는 에칸페르데는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에칸페르데 요금, 수질보호대책 등 독창적인 도시계획으로 유명.

시청을 찾아 환경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TOZ를 찾아 환경산업발전전략과 환경기술에 대한 연수



덴마크

호르젠스(Horsens)

10/19

주제 : 농산식품산업 자동화단지 클러스터 전략

Horsens 인구 6만명. 취업인구 3만1천명, 매년 5만8천명이 방문. 기업수 4,915개. Agricon Valley 내 기업 수 70개. / Agricon Valley는 vejle, Frederica, Kolding 등 3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Horsens 시가 중심도시. / 아그리콘 밸리는 농업 뿐만 아니라 농업용 철강제품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철강과 농산품에서의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

농업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지자체는 이 3개 그룹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Vitus Bering 기술학교, Bygholm 농업기계연구소는 산학연계 인력양성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유가공 제품 생산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 세계적인 기업 3개사(GEA, APV Baher, Alfa Laval)가 낙농업 장비에 대한 세계시장의 80%를 독점. 농산식품 클러스터 성공사례에 대한 연수.

□ Danish Crown 돈육가공처리공장 견학

Agricon Valley 농산식품산업 자동화단지는 농민과 농업관련기계기업, 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이 용이한 조건으로 북유럽 최대의 유가공기업인 Arla사의 최대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대의 돈육회사인 Danish Crown을 유치, 덴마크내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취업자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음.